

리우이다(劉一達)의 《후통의 뿌리(胡同根兒)》 소고

金水珍*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살아 숨 쉬는 사전
3. '七〇屆'와 후통 사람들
4. 후통 사이로 보이는 베이징 풍경
5. 나오며

1. 들어가는 말

'후통(胡同)작가'로 불리는 경미문학 제3세대¹⁾ 작가 리우이다(劉一達)(1954-)는 《北京晚報》에서 십여년간 기자생활을 한 특이한 이력의 작가이다.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1980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京味' 관련 작품으로 유명하다. '北京眼' 시리즈로 《黃天后土》, 《蒼生凡境》, 《憑市臨風》, '胡同風' 시리즈로 《城根衆生》, 《皇都市井》, 베이징 문화와 역사를 담은 '京味' 시리즈 《有鼻子有眼兒》, 《老根兒人家》, 《老鋪底子》 등이 있으며, '이다(一達)서적' 시리즈로 《嘔摸北京》, 《大街面兒》, 《傍家兒》, 《故都子民》, 《百年德性》, 《胡同根兒》와 《北京爺》가 있다.

리우이다의 소설 가운데 논픽션문학집 《人蟲兒》은 2000년도에 '人蟲——

小人物的故事'라는 제목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10여년간 공들여 썼던 경미소설 《후통의 뿌리(胡同根兒)》 역시 '世紀七零屆'라는 제목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800페이지에 가까운 장편소설인 《胡同根兒》의 원제는 《七〇屆》이었지만, 이 소설이 베이징의 작은 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이 전부 후통에서 생활하였던 인물들이고 모두가 '七〇屆'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판시에 《胡同根兒》로 바꾸었다.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작가 리우이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胡同根兒》에 관해, 본고에서는 우선 언어적 특징과 '七〇屆'와 베이징 후통 공간 속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베이징 후통 속에서 펼쳐지는 민속과 문화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써 경미 3세대 작가 리우이다 작품의 의의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살아 숨 쉬는 사전

《胡同根兒》를 비롯한 리우이다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고 두드러지는 특징을 꼽는다면, 다름 아닌 언어 면일 것이다. 특히 《胡同根兒》에서는 전체 내용을 500여 개의 작은 절로 잘게 쪼개었고, 각 절의 제목 역시 거의가 베이징 토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도 물론 베이징 토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리우이다의 창작 의도 중 하나가 독자들에게 책을 구입하는 것은 곧 '사전을 산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들의 인식은 《胡同根兒》를 보면 마치 베이징 토어 사전을 산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작가는 신문에 <30위안으로 사전을 사다(三十七元買詞典)>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²⁾

* 北京大 中文科 博士后研究員.

1) 대체로 경미문학의 제1세대는 1920년에서 40년의 老舍를 대표로 하는 문학, 제2세대는 80년대까지의 鄧友梅, 汪曾祺, 韓少華, 陳建功 등을 대표로 하는 문학, 제3세대는 80년대 이후의 王朔, 劉恒, 馮小剛, 劉一達 등을 중심으로 한 문학으로 구분된다.

2) 劉一達, <自序: 帶您到胡同兒溜個彎兒>, 《胡同根兒》,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1, 10쪽. 참고: 心笛, <劉一達是甚麼“蟲兒”>, 《北京晨報》, 2008. 8. 14 참고.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많은 옛 베이징의 土語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버린 가운데, 베이징 출신 리우이다는 베이징 土語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리고 보존시켜야겠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 작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본적은 산둥이지만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베이징 西城의 작은 후통에서 성장했고, 경미 문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글을 쓸 때 ‘경미 언어’를 즐겨 사용해 서술했으며, 점점 스스로의 창작 풍격을 형성시켰다. 베이징 사람들 중에 내 작품을 즐겨 보는 사람들은, 내가 ‘쌍아올린’ 글자를 보고 마치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비록 나는 글에서 되도록 土語를 적게 쓰려고 하지만, 어떤 말들은 순수한 土語로 표현해야 맛이 있다. 이건 아마도 타지 독자들에게는 번거롭겠지만, 처음에는 낯설어도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많이 보다 보면 ‘글의 확실한 뜻은 이해하지 못해도 글자만 보고 대강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³⁾

그래서 리우이다의 작품에서의 베이징 토어의 사용은 독자층을 한정짓는 한 디캡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하이 등 타 지역 독자들에게는 베이징 특색이 묻어나는 경미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리우이다는 경미적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베이징의 方言 土語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해하기 힘든 단어에는 주석을 달았다.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준 사람은 리우이다가 기자로서 취재했던 베이징 방언 연구가 徐世榮이었다.⁴⁾ 현대 한어의 어휘량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방언의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독자들이 단순히 읽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베이징 방언들을 실제로 배우고 사용하게

3) 我的祖籍是山東，但却是北京生人。我這小兒在西城的一條小胡同長大，我對京味兒文化有一種特殊的感情，所以我寫文章愛用京味兒語言敘述，漸漸形成了自己的寫作風格。有些北京人愛看我的作品，他們覺得看我“碼”出來的字，像是在跟他們聊天，雖然我在文章裏儘量少寫土語，可有些話非用地道的土語表達才有味兒，這也許會給外地讀者帶來一些麻煩，但一回生二回熟，見的多了，也就能“望文生義”了。(劉一達，〈都市新聞眼〉，北京：中國文聯出版社，1996，5쪽)

4) 劉一達，〈自序：帶您到胡同兒溜個彎兒〉，〈胡同根兒〉，北京：中國文聯出版社，2001，9-10쪽 참고.

함으로써 다시금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사용 언어로서의 생명력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리우이다에 의해 재발견된 ‘蟲兒’은 옛 베이징의 土語로, 한 사람이 어떤 직업에서 오래 일을 하게 되면, 이 직업에서의 전문가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통한 사람’ 즉 ‘蟲兒’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잊혀졌다가 리우이다에 의해 옛 베이징의 土語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았다. 사실, 리우이다 작품 속의 ‘蟲兒’은 이미 이 土語의 원래 의미를 벗어났으며 그의 작품 속의 많은 ‘蟲兒’은 폄하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베이징 민속 연구가 彌松頤는 리우이다가 많은 베이징 토어들에 생동감을 더해 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미 사라져버린 어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하는데 ‘蟲兒’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리우이다는 ‘人蟲’ 시리즈로 이미 3, 40개의 ‘蟲兒’의 이미지를 창조했으며, 이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는 베이징 문화 풍경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⁵⁾

장편소설 《胡同根兒》에는 다양한 베이징 토어와 신토어 그리고 베이징 유행어와 은어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他早就聽蝻兒叫去了。‘走’之前，他退了休，在家玩了幾年鳥兒。閑不住，又把當年的那點兒炒崩豆兒的手藝給掙起來，在一家食品廠當顧問。誰知幹得好好兒的，心肌梗塞，一口氣沒上來，就撂了挑了。”⁶⁾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어. ‘떠나가시기’ 전에는 퇴직하시고 몇 년간 집에서 새를 키우며 노셨지.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또 예전 그 콩 볶는 솜씨를 가지고 식품공장에 고문을 지내셨어. 일을 잘 하고 계셨는데 심근경색으로 숨 한 번 못 쉬고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리우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베이징 토어로 ‘죽다’는 의미인 ‘聽蝻兒叫’와 ‘撂了挑了’를 사용하였다.

5) 禹佳，〈劉一達和他的“蟲兒”〉，〈北京紀事〉，2001年 22期，46-47쪽 참고；劉一達，〈“報蟲兒”曝光〉，〈光彩〉，1994年 08期，55쪽 참고.

6) 劉一達，〈胡同根兒〉(北京：中國文聯出版社，2001)，10-11쪽.

說起來我們是“發小兒”，他的這個外號還是我給起的。⁷⁾

말하자면 우린 ‘소꿉친구’이고, 그 애의 이 별명은 내가 지어준 것이다.

‘發小兒’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 즉 ‘소꿉친구’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베이징 토어이다. 이 소설은 어려서부터 후통에서 함께 자란 ‘七〇屆’ 사람들의 이야기이므로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姥姥! 你敢動我一根汗毛兒!” 關大媽把腰一叉, 端起了架式。⁸⁾

“어립없어! 감히 내 솜털 하나라도 건드리겠더구!” 關大媽가 손을 허리에 대고 거드름을 피웠다.

‘姥姥’는 격렬한 반박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흥’, ‘헛소리 마’, ‘감히’에 해당하는 베이징 토어이다.

“不能再喝了, 再有兩杯我就彈了。”⁹⁾

“더는 못 마셔. 두 잔 더 마셨다간 난 안돼.”

여기서 ‘彈’은 베이징 신 토어로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盆兒錢’¹⁰⁾에서 ‘盆兒’은 유골함을 가리키며 이 단어의 의미는 ‘생전에는 봉양하고 사후에는 장사를 지내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토어인 ‘棺材板錢’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五張兒’¹¹⁾은 ‘십오세’의 의미를 가진 베이징 신유행어이며, ‘卷’¹²⁾은 ‘욕하다’라는 뜻의 베이징 토어이다. 또 ‘下巴頰底下打滴溜兒’¹³⁾은 당시 베이징 사람들이 즐겨 하던 말로 ‘어떤 사람에게 간첩’하는 의미이다. ‘個’¹⁴⁾는 여기서 90년대말 베이징 신유행어로 ‘10000위안 인민폐’

7) 앞의 책, 2쪽.

8) 앞의 책, 172쪽.

9) 앞의 책, 83쪽.

10) 앞의 책, 98쪽.

11) 앞의 책, 182쪽.

12) 앞의 책, 286쪽.

13) 앞의 책, 245쪽.

를 말한다. ‘盤兒靚’¹⁵⁾은 원래는 베이징 강패들의 은어인데 나중에 베이징인들의 유행어가 되었으며, ‘盤兒’은 ‘얼굴’, ‘靚’은 ‘예쁘다’라는 의미이므로 ‘盤兒靚’은 곧 ‘예쁘게 생기다’는 뜻이다. ‘犯照’¹⁶⁾는 70년대 베이징 중학생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행했던 은어로 ‘서로 마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胡同根兒》에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경미 어휘의 사용을 통해 경미적 특색을 물씬 풍기고 있다.

또한, 리우이다는 작품 속의 ‘경미’라는 것은 단순히 경미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감’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의 글은 독자들이 작가의 이름을 보지 않고 서두만 보아도 그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줄 만큼 개성이 뚜렷하다.

사실, ‘극을 보다’와 ‘극을 듣는다’라는 것은, 비록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어긋날 뿐 아니라, 느낌도 다르다. 옛 베이징 사람들은 극장에 가면 주로 노래를 들었는데, 특히 경극을 들었다. ‘西皮’와 ‘二黃’ 한 가락을 옛 베이징 사람들은 무대 아래에 앉아, 늘상 두 눈을 살짝 감고 정신을 집중하고 단정히 앉아서 가볍게 머리를 흔들며 손으로는 박자를 쫓아 다리를 두드리며, 때로는 입으로도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다가, 명배우가 절묘한 부분을 부르게 되면 갑자기 눈을 뜨고 단전의 기를 끌어 모아 잘한다라고 외친다. 이것이 바로 극을 듣는 운취이다. 극을 보면 전혀 이렇게 않는데, 눈을 뜬 채 무대 위를 바라보면서 이 느낌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진정한 연극광은 지금까지도 극을 ‘보지’ 않는다.¹⁷⁾

눈으로 ‘보는’ 작품 보다는 ‘듣는’ 작품 경향을 추구하는 그의 창작 스타일은 경미문학의 태두 라오서의 창작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경미 언

14) 앞의 책, 347쪽.

15) 앞의 책, 360쪽.

16) 앞의 책, 362쪽.

17) 其實, “看戲”和“聽戲”雖然是一字之差, 不但意義滿擰, 而且味兒也不一樣。老北京人進戲園子, 主要聽唱, 尤其是聽京劇。一段“西皮”或“二黃”, 老北京人坐在臺底下, 往往二目微閉。凝神危坐, 輕輕地搖着腦袋, 手跟着板眼在腿上拍着, 有時嘴裏也情不自禁地小聲哼哼着, 碰上好角兒唱到妙處, 會突然睜開眼, 引丹田氣, 叫一聲好兒。這就是聽戲的韻味兒。看戲則滿不是這麼回事兒, 瞪着眼睛往臺上看, 能品出這種味道來嗎? 當然, 真正的戲迷, 從來也不“看”戲。我想那位愣要把“聽戲”改成“看戲”的編輯不會知道“聽戲”是怎麼回事, 當然, 我不會怪他甚麼。(劉一達, <自序>, 《有鼻子有眼兒》(北京: 北京出版社, 2003), 5쪽.)

어는 리우이다식의 독특한 언어로 지금 유행하는 베이징 비속어와는 완전히 다르며 라오서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또한 새로운 시대의 숨결을 지니고 있다¹⁸⁾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3. ‘七〇屆’와 후통 사람들

리우이다 자신도 인정했듯이,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적인 소설을 쓰는 그의 창작 스타일은 전문 작가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다. 그 자신, 대부분의 내용이 허구성을 띤 문학 작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작품들이 실제하는 공간과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자전적 이야기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리우이다의 창작 활동의 기반은 기자직을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말 중학교를 졸업하고 채 16세가 되기도 전에 베이징 서쪽 교외 지역의 한 목제품 가공 공장으로 파견되어 솥을 때를 일을 하게 된다. 당시 함께 솥을 때던 일꾼들의 출신 성분은 무척 다양했는데 49년 이전에 장사치, 국민당 병사, 자본가, 天橋의 예인 등 이른바 ‘三教九流’라 부를 만한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함께 솥을 때며 옛 베이징의 일들을 즐겨 이야기했다. 리우이다가 당시 들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후 작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풍부한 창작 소재의 원천이 되었다.¹⁹⁾

6, 70년대에 태어난 후통 청년들의 성장, 체험, 사랑과 방황은 제3세대 경미소설의 주요 소재이다. 옛 베이징 사람을 전통 경미문학의 주요 표현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들 후통 청년들의 이미지는 경미문학 제3세대 이른바 ‘新京味’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다.²⁰⁾ 리우이다가 《胡同根兒》을 쓰게 된 창작 동기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 그가 ‘七〇屆’ 중학교 졸업생이었기 때문이며, 둘째

후통에서 나고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七〇屆’는 거의 고유명사이다. 이 70기의 학생들이 겪은 일은 너무 많아서 태어나서 성장까지 거의 모두 정치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년이 되자, 개혁의 대조류와 시장경제, 지식경제시대로 내몰렸다. 이 사람들은 사상관념이든 지식구조이든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낙도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도 일찍이 사랑받던 때가 있었다. ‘老三屆’ 이후에 도시에 남도록 내몰려서 농촌에 내려가서 인민공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개간경작부대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영기업에 배치되었다.²¹⁾

문학 이전인 1964-1966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대인 ‘老三屆’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화한 知青 문학열이 일어난 반면, 이후 세대로서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내보내져야 했던 ‘七〇屆’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세대였다. ‘七〇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되었던 나날들이 거의 없었는데, 대약진, 反右派 투쟁, 문학, ‘사인방’ 비판, 개혁개방, ‘下海’, ‘下崗’ 등 내내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 부대껴온 세대이다.

《胡同根兒》의 원제는 원래 《七〇屆》였다. 10년 전, 리우이다는 베이징 노동 시장을 취재하며 ‘下崗’하고 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리우이다에게 ‘우리에 관해 쓰세요’라고 했다. 리우이다가 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차례로 100여명에 달하는 ‘七〇屆’들을 방문했다. 그동안 거의 조명 받지 못했던 七〇屆의 사람들은 베이징에만 30여만명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최소한 500만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이었다. 리우이다는 특출나지는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七〇屆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여 이들에 대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보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창작에 임하게 된다.²²⁾

21) “七〇屆”幾乎成了專有名詞。這屆學生經歷的事兒太多，從出生到成長，幾乎都是在政治運動的漩渦中走過來的。人到中年，趕上了改革大潮和市場經濟、知識經濟時代。我們這撥兒人不論在思想觀念上，還是在知識結構上，都有一種力不從心的落伍感覺。“七〇屆”也曾有得寵的時候。當年“七〇屆”在“老三屆”之後，趕上了留城，沒去插隊，也沒去農墾兵團，大都分配到了“國企”。(劉一達，〈自序：帶您到胡同兒溜個彎兒〉，2001，3-4쪽)

18) 劉一達，〈情系老北京〉，《北京紀事》，2003年 23期，19쪽.

19) 沈文諭，〈我以我筆寫京華—記北京晚報記者劉一達〉，《新聞與寫作》，2002年 10期，14쪽 참고.

20) 王一川 主編，《京味文學第三代》(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6)，166쪽 참고.

무수한 사회적 사건들과 격변들을 몸소 겪으며 견뎌온 七〇屆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胡同根兒》에서 리우이다는 후통이라는 공통된 공간을 통해 하나로 연결시킨다.

“화즈네 딸이 남자랑 도망갔대!”²³⁾

이제는 사회 각계에서 조용하고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중년의 七〇屆 동기들 앞에 던져진 이 생똥맞은 소문 한 마디는, 소설의 첫 구절로 진상은 알려주지 않은 채 소설 전반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 하던 이 한 마디를 툭 던져놓고, 리우이다는 여기에 곁가지들 치듯이 어린 시절 후통 친구이자 七〇屆 동기인 화즈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능숙하게 풀어놓는다.

《胡同根兒》에서 묘사된 화즈(華子), 라오더우(老豆), 웨이커(維克), 탄즈(壇子)와 화즈의 어머니인 關大媽, 텡샤오닝(藤小寧)의 부친 藤二爺 등의 七〇屆 세대와 후통 사람들은 모두 베이징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리우이다는 언어적 측면 못지않게 인물의 묘사와 창조에 공을 들였다.

어린 시절 절친한 후통 친구였던 도시 빈민 출신 라오더우는 부친이 우파였기에 黑五類 출신이었던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어른이 되어 내 기사를 보고 기자가 된 ‘나’를 찾아온다. 수십 년만의 만남에서 당시의 아픈 기억은 라오더우가 가져온, 어린 시절 구슬놀이에서 저서 내가 잃었던 유리 구슬 5개를 보며 눈 녹듯이 사라진다.

라오더우가 전해온 화즈네 소식은 어린 시절 후통 공간으로 나의 기억을 돌려놓는다. 기인 출신으로 후덕하고 인심 좋았던 화즈의 모친 關大媽를 떠올리고 그녀를 꼭 닮은 성격의 화즈를 떠올리게 된다.

“사실 넌 절대 화즈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마음이 아주 선량한 여자야. 옛 베이징사람 같은 인정이 두텁고 정의감이 강한 그런 마음은 정말 존경할 만해. 성격은 좀 무뎡뎡하지만 말투는 날카로워도 마음은 부드럽다구!”²⁴⁾

혼자 딸을 키우며 朝陽門 밖에서 肉餅店을 연 화즈는 어린 시절 후통 친구의 딸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딸로 삼아 살아가고 있었다. 정이 많고 의리가 있으며 화통한 성격의 화즈는, 리우이다가 《胡同根兒》에서 특히 공을 들여 묘사한 전형적인 베이징 인물이다.

“..... 지금 베이징의 길은 점점 넓어지고 도시는 점점 커지고 집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거대하지만 깊은 토양을 지닌 베이징 문화 혹은 경미 문화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변화할 리가 없습니다. 베이징 사람의 성격은 변하기가 어렵지요.”²⁵⁾

후통 친구인 웨이커와 텡샤오닝의 딸을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까지 친딸로 키워온 화즈는, 딸 커닝(克寧)이 어머니인 자신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인지도 모른채 웨이커를 따라 미국으로 가려고 하자 힘겹게 눈물을 머금고 보내준다.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화즈는 결코 베이징을 떠날 생각이 없다.

“어디도 나를 낳아준 베이징만한 곳은 없어. 난 아무데도 안가! 베이징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베이징 귀신으로 죽어야지.....”²⁶⁾

화즈와 마찬가지로 베이징 작은 후통에서 나고 자란 웨이커 역시 베이징을 떠나 이국땅에서 살지만, 내내 자신이 후통에서 자란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24) “其實，你并不了解華子，她是心地非常善良的女性，她身上那些老北京人的古道熱腸，實在令人可敬。她的脾氣是點兒，可她是刀子嘴豆腐心呀!” (劉一達, 《胡同根兒》(上·下), 557쪽)

25) “.....現在北京的馬路越來越寬，越來越大，房子越來越高。這種變化表面看是巨大的，但作為有着深厚土壤的北京文化或者說京味兒文化，不會那麼容易起變化。北京人的性格變起來更難。”(心笛, <劉一達“寫蟲兒”>, 《青年導刊》, 2000年 84期)

26) “.....哪兒也沒生我北京好。我哪兒也不去! 生是北京人，死是北京鬼。” (劉一達, 《胡同根兒》, 571쪽)

22) 沈澧, <記者劉一達再嚼京味-《胡同根兒》的穿堂風>, 《北京文化》사이트 2002. 8. 2 참고.
23) “華子的閨女跟人跑了!” (劉一達, 《胡同根兒》, 1쪽)

않는다. 이들은 중국의 격변 속에서 외롭게 죽은 텡샤오닝의 묘를 베이징으로 이장하기 위해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난 후통의 뿌리야! ...”²⁷⁾

“우린 모두 후통의 ‘뿌리’야. 후통의 흙을, 샤오닝이 영원히 함께 하도록 뿌리자.”
28)

후통의 흙을 저마다 한줌씩 뿌리며, 베이징 후통에서 나고 자란 ‘七〇屆’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나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후통이라는 특정 공간에서의 기억을 공유한 ‘후통의 뿌리’임을 다시금 되새긴다.

4. 후통 사이로 보이는 베이징 풍경

리우이다는 《北京晚報》에서 <京味報道>란을 맡아 경미 문화를 반영한 기사를 다루었으며, 지금까지 출판된 저서는 40여부에 달한다. 그는 베이징 문화와 베이징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경미 관련 기사와 문학 작품들로 이미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이다. 20여년 전부터 시작된 리우이다의 경미 문화 연구는, 자신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도 십여곳을 돌아다니며 후통 구석구석을 눈으로 귀로 체험한 결과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과물이었다. 베이징 거리와 후통 중에 그가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으며 최소한 5만여 직업군의 베이징 사람들을 방문하고 접촉했으며 그가 작성한 취재록만 해도 50여권이 넘는다. 오랫동안 쌓아온 이러한 숭한 경험과 경력은 경미 관련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소재들을 어느 누구

27) “可我是胡同兒的根兒呀!” (劉一達, 《胡同根兒》, 581쪽)

28) “我們都是胡同兒的根兒, 讓這捧胡同兒的土永遠伴隨着小寧吧。” (劉一達, 《胡同根兒》, 762쪽)

보다도 탄탄하게 비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사실 ‘京味’의 성질을 띤 베이징 문화라고 하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좀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리우이다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미 문화는 그가 직접 찾아가 더듬어 만져보며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체험하고 코로 맡아본 생생한 경험들을 풀어놓은 것들이기에, 오히려 독자들로서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들어온다고 하겠다. 그래서 현재 리우이다를 경미 문화의 전달자이자 경미문학의 대표 작가로 부르는 데에는 단순히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 아니며, 꾸준히 오늘날 점차 사라져가는 옛 베이징 이야기와 그곳의 문화와 더불어 현실 속의 베이징 이야기와 문화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전달하려는 그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라고 하겠다.

리우이다는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점점 더 많은 베이징 사람들이 후통과 작별하고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갈 때면, 저는 그럴수록 점점 그걸 더 써서 사람들에게 후통은 없어졌지만 후통 문화의 뿌리는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책에서 많은 속어들과 민간의 풍토와 인정들의 묘사, 이 역사 문화의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했는데, 이 책이 농후한 문화적 색채를 지니고 사람들이 베이징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의 베이징을 느꼈으면 합니다.”³⁰⁾

《胡同根兒》에서 주인공 나는 辟才 후통에서, 그리고 친구들은 이웃한 東養馬營 후통에서 나고 자랐다. 리우이다의 작품 속 대부분의 지명이 그러하듯이, 주인공 ‘나’의 고향인 辟才 후통 역시 베이징에 있는 실제 후통의 이름이다. 《胡同根兒》에서는 《京師坊巷誌稿》의 실제 근거와 기록을 인용하면서 베이징 시단(西單)에 위치한 辟才 후통의 역사와 연원을 자세히 설명³¹⁾하고 있다.

29) 曉平, <《畫蟲兒》京味兒>, 《北京晨報》, 2000.7.22, 36쪽 참고; 張薇, <劉一達: “京味兒”文化的守望者>, 《中國藝術報》, 2009.02.10 참고.

30) “當越來越多的北京人告別胡同, 搬進新建的樓房時, 我就越來越感覺應該把它寫出來, 告訴人們雖然胡同沒了, 但胡同文化的根兒却可以長久地延伸下去。我在書中使用了大量的俚語和民間風俗風情的描繪, 這些歷史文化掌故的演繹, 使這部書具有濃厚的文化色彩, 讓人們了解北京的歷史, 感受現在的北京。” (劉一達, <情系老北京>, 《北京紀事》, 19쪽)

31) 관련 내용은 劉一達, 《胡同根兒》, 143쪽.

동창 화즈네는 東養馬營에 살았는데 라오더우네도 같은 후통에 살았다. ‘나’는 기자로서 베이징 후통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사전에 이 후통을 고증하게 된다. 고증 과정을 통해 이곳이 청조 旗人 병사들이 말을 기르던 곳이었고 후통에는 말을 기르던 기인 병사들의 병영이 있어서 이 지명이 유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후통 장소는, 실태를 풀어 놓듯 이어지는 기인 출신인 화즈네 모친 關大媽와 좌령을 지냈던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³²⁾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나’의 동창 야오웨이커의 집도 이 辟才 후통 안쪽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鬼門關에는 후통의 이야기를 하며 나중에 왜 貴門關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高華里로 바뀌었는지와 1920, 30년대 베이징의 후통에 아직 가로등이 없던 시절, 어두워서 귀신이 어슬렁거린다고 해서 생겼다는 지명의 유래³³⁾를 들려주며, 리우이다는 자연스럽게 후통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마치 후통의 연원을 담은 전문 서적을 보듯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지루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게 전체 이야기 속에 잘 녹아 있으며, 이러한 점은 리우이다 창작의 특색이자 작가적 역량이기도 하다.

《胡同根兒》에서는 후통의 철거된 집들과 변화들을 현재 辟才 후통의 달라진 면모를 통해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너 아직 그 후통에 사니?” 내가 물었다. “에이, 진작에 이사갔지. 너 몰라? 우리 살던 그 후통 말이야. 철거돼서 이전되었잖아. 辟才 후통 북쪽 절반이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전부 철거되었어. 우리의 그 후통과 나란히 있던 6개까지 半壁街, 南太常, 南千章, 南沈籠子, 榆錢 후통이 말이야. 와, 철거되고 후통 십여 개가 남았구나.”³⁴⁾

1990년대 이후 도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베이징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후통은 철거되어 점점 줄어들었다. 베이징은 1940년대에 3,000여 개의 후통이 있

32) 앞의 책, 41쪽.

33) 앞의 책, 144-145쪽.

34) “你還住在那條胡同兒嗎?”我問道。“嗨，早搬了。你不知道嗎？咱們那條胡同兒拆遷了。整個辟才胡同北半部從東到西，全拆了，跟咱們那條胡同兒平行的一條到六條，半壁街、南太常、南千章、南沈籠子、榆錢胡同兒，嚯，拆了有十來條胡同兒呢。”(劉一達,《胡同根兒》, 174쪽)

있고 가장 많을 때는 4,000여 개였으며 현재의 후통은 철거되어 500여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³⁵⁾ 베이징 후통에서 나고 자란 리우이다가 체감하는 후통 철거에 대한 상실감과 위기감은 어느 누구보다 더 할 것이다. 그래서 리우이다에게서는 과거와 현재의 후통에 관한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에 대한 베이징 토박이 작가로서의 일종의 의무감을 발견할 수 있다.

리우이다는 후통 공간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온, 그 자체가 이미 후통의 역사와도 같은 오래된 왜나무 역시 베이징 후통의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후통 공간 상실의 대체품이자 매개물로 인식한다.

차는 후통 중간의 오래된 왜나무 밑에서 정차했다. 이 왜나무의 나이는 최소한 백오십년이다. 우리가 사물을 구별하고 기억할 나이가 되면서부터 그것은 목을 흔들며 여기에 서 있었다. …… 이 왜나무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무수한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켰으며, 5월에 만개한 왜나무꽃은 후통에 그윽한 향기를 가져다주었고, 7, 8월에는 나무에서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 아이들에게 끝없는 재미를 가져다주었다. …… 후통의 오래된 집들은 철거되었고 얼마가지 않아 이 후통도 아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오래된 왜나무는 도도하게 우뚝 서서 이 후통의 역사적 증인이 된다. 오래된 왜나무는 바로 베이징 후통의 뿌리이다! 가을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 가지와 촘촘하게 돌아난 나뭇잎으로 자신의 기억을 흔들거리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결코 요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나와 화즈, 라오더우는 차에서 내려 이 오래된 왜나무를 바라보며 각자 마음으로부터 깊디 깊은 감개를 드러냈다.³⁶⁾

《胡同根兒》에서 ‘베이징통’으로 통하는 ‘나’는 친한 이들을 데리고 후통을 안내하며 후통의 내력을 들려준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후통의 옛날 집들을 둘러보며 지난날을 떠올리기도 한다. ‘나’는 쫓그리고 앉아 후통의 깨진 문 반

35) 沈文榆, <我以我筆寫京華—記北京晚報記者劉一達>, 15쪽.

36) 車停在了胡同兒中部的一棵老槐樹下。這棵槐樹的樹齡至少有一百五十年。從我們記事起，它就揚着脖子挺立在這兒了。……這棵槐樹能引起我們許多兒時美好的回憶，五月盛開的槐樹，給胡同兒帶來幽香，七月八月，樹上的“吊死鬼”，給孩子們帶來無窮的樂趣。……胡同兒裏的老房拆了，用不了多久，這條胡同兒也可能會消失。但是，這棵老槐樹却傲然挺立，作為這條胡同兒歷史的見證。在秋風中，它的枝杈密葉搖曳着自己的記憶，婆婆絮語，向後來人講述着並不遙遠的故事。(劉一達,《胡同根兒》, 753-754쪽)

석을 두어 시간 넘도록 봐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무엇이나 신선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베이징 후통의 모든 것에 흥미와 애정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 있다. ‘나’는 바로 베이징 문화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리우이다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거울이기도 하다.

또한, 후통 안에 사는, 혹은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사이 사이, 작가는 자연스럽게 이들 가족의 직업을 언급하면서 과거 베이징에서 유명했던 금공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베이징의 銅器 만드는 직업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³⁷⁾ 텡샤오닝의 증조부의 직업을 통해서는, 베이징의 전통 의상과 전통 자수인 ‘宮綉’라고도 불리는 ‘京綉’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준다.³⁸⁾

베이징의 전통 음식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는데, 떡의 일종인 ‘盆兒糕’³⁹⁾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치 베이징 전통 요리책을 보는 듯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⁴⁰⁾ 화즈네가 하던 전통 과자 가게에 대한 묘사에는 옛 베이징 후통의 주변 풍경이 가득하다.⁴¹⁾

“전통 문화이고, 경미 문화라구!”⁴²⁾

리우이다는 다양한 베이징 후통의 문화를 보여주며 소소한 이 모든 것들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경미 문화임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후통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베이징의 전통 먹거리 문화를 되살리자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인 것이다.

5. 나오며

리우이다를 비롯한 ‘新京味’라고 할 수 있는 경미문학 제3세대에 속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은, 경미문학 배경이 되어온 후통 공간의 상실과 변화, 그리고 후통 거주 인물들의 세대 변화로 인해 과거 경미문학과는 다소 다른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경미문학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보아왔듯이 여전히 베이징 토어 등의 경미 언어, 오랜 수도이자 황성인 베이징의 거주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심리적 여유에서 오는 선량함 등의 인성, 후통 문화 등의 특유의 경미 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리우이다의 장편소설 《胡同根兒》 역시 경미 언어의 사용, 후통 공간의 인물들과 베이징 문화 등 기존의 경미적 특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우이다의 작품은 특히 베이징 토어, 베이징 신유행어 등 경미 언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은 《胡同根兒》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의식적인 경미 언어의 사용과 친절하게 담아놓은 상세한 주석은 ‘살아있는 사전’이라는 평가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베이징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작가 리우이다의 이와 같은 지나친 친절은, 다소 작위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실의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대중성의 획득이라는 득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이제는 중년이 된 베이징 후통에서 나고 자란 ‘七〇屆’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胡同根兒》 등의 리우이다의 많은 작품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다. 경미 언어에 치중한 문학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배우들이 구사하는 순수 베이징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리우이다 문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37) 劉一達, 《胡同根兒》, 43-44쪽.

38) 劉一達, 《胡同根兒》, 277, 276-278쪽.

39) 차조나 찹쌀가루에 설탕, 대추를 넣어 버치 같은 큰 그릇에 쪄 떡으로, 작게 썰어 먹는다. 작은 것을 ‘碗兒糕’라 한다.

40) 劉一達, 《胡同根兒》, 721쪽.

41) 劉一達, 《胡同根兒》, 722쪽.

42) “傳統文化, 京味文化呀!” (劉一達, 《胡同根兒》, 723쪽)

리우이다는 자신의 작품을 독자와의 ‘공동의 아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 자신, 언제나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작품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이 가장 만족할 작품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작가의 말은 창작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신경미의 한 축을 이루어나 갈 리우이다의 역할을 기대하게 해준다.

< 參考文獻 >

- 劉一達, 《胡同根兒》(上·下), 中國文聯出版社, 北京, 2001.
 _____, 《都市新聞眼》, 中國文聯出版公司, 北京, 1996.
 _____, 《有鼻子有眼兒》, 北京出版社, 北京, 2003.
 王一川 主編, 《京味文學第三代》,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2006.
 陳 剛 編, 《北京方言詞典》, 商務印書館, 北京, 1985.
 齊如山, 《北京土話》, 北京燕山出版社, 北京, 1991.
 翁 立, 《北京的胡同》, 北京燕山出版社, 北京, 1992.
 송승엽, 《중국개혁개방 30년》, 휴먼비전, 서울, 2008.
 조관희, 《세계의 수도 베이징》, 창비, 서울, 2008.
 劉一達, <“報蟲兒”曝光>, 《光彩》 1994年 08期.
 _____, <情系老北京>, 《北京紀事》, 2003年 23期.
 心 笛, <劉一達“寫蟲兒”>, 《青年導刊》, 2000年 84期.
 _____, <劉一達是甚麼“蟲兒”>, 《北京晨報》, 2008.8.14.
 曉 平, <<畫蟲兒>京味兒>, 《北京晨報》, 2000.7.22.
 禹 佳, <劉一達和他的“蟲兒”>, 《北京紀事》, 2001年 22期.
 沈文愉, <我以我筆寫京華—記北京晚報記者劉一達>, 《新聞與寫作》, 2002年 10期.
 張 薇, <劉一達:“京味兒”文化的守望者>, 《中國藝術報》, 2009.02.10.
 沈 灃, <記者劉一達再嚼京味—《胡同根兒》的穿堂風>, 《北京文化》사이트 2002.8.2.
 신영재·김종인, <도시주택지 골목공간의 장소적 의미>,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0권 제2호, 1990.

< 中文提要 >

稱爲所謂“胡同作家”以及“京味作家第三代”的作家劉一達(1954-)是一位十多年在《北京晚報》當過記者, 有着獨特簡歷的人物。他的作品包括長篇小說《胡同根兒》等, 劉一達文學裏所寫的京味語言是他的文學的一大特徵。尤其是《胡同根兒》裏的許多北京土語、北京流行語等的京味語言表現得非常明顯, 使讀者認爲《胡同根兒》這本書跟買詞典一樣。

在北京胡同裏土生土長的, 屬於“七〇屆”的中年人雖各有着不同的職業、不同的生活方式, 儘管如此, 然而他們都擁有小時在胡同空間生活的美好記憶。因此無論住在哪兒, 這種共同的記憶讓他們都感覺到自己是北京的“胡同根兒”。

通過《胡同根兒》, 劉一達表現了各種各樣的北京胡同文化。他主張細小的北京胡同文化也都值得保存。劉一達說, 自己的文學作品是他和生活讀者的“共同的孩子”。這句話意味着他已具有願意與讀者溝通的認真態度。并且, 他確信自己最滿意的作品還沒問世。我們可以期待“新京味”中心作家劉一達的旺盛的創作活動。

關鍵詞: 新京味、北京土語、活詞典、七〇屆、胡同文化、胡同根兒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25	2009.9.17	2009.10.5	2009.10.12	2009.10.30